불법사찰 사례·증거 직접 수집한다

교구본사 및 수도권 주요사찰에 현수막도 '게시'
불교계 민간인 불법사찰 비대위 3차 회의서 결정

불교계 관련위원회 별이진 불법사찰에 대해 '불교계 ·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대오 스, 법광)가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관련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비대위 위원 성진스님(조계사 포교위원회 위원장)과 심무위원장 묘향스님(사회국장)이 업무를 추진한다. 이는 이달 말까지 공개 접수하는 사례 수집과 불개도, 불법명예훼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비대위는 또 한국 교구본사와 직영사찰, 수도권 주요사찰 등 100여 곳에 불법사찰 관련 내용이는 함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정조사를 통한 신상규명과 제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와 국무총리, 검찰총장 등 관련자 처벌 등을 비롯하여으로 갈구해가는 활동에 다, 당분간 심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중요 안건을 상정해 비대위 차원의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스님 분구는 '불교계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와 '이명박 정부는 불교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라'로 정했다. 스님과 불자들에게 불법사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조계사에서 지세 제작한 홍보동영상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고정동영상은 법광스님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면 앞으로 결과에 따라 대통령 마련할 것"이라며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비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후시부터 진행된 이날 회의는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위원장 대오스님(종회사회분과위원장), 법광스님(사회부장)을 비롯해 정무스님, 법안스님, 능도스님, 혜총스님, 남일스님(본사주지), 권불스님(연구위원)

불교계 · 민간인 불법사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 총무부장), 손안식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 정우식 대불청 회장,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유정희 전북불교시민연대 대표, 임희동 포교사단 단장, 최경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국정조사 '환영' 표명

앞서 비대위는 6월20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의 국회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치질서의 신뢰성이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돼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의혹들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권에 만연한 갈등과 불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화석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뒷조사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국정조사를 통해 종교계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와 뒷조사 행위가 근절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홍다영 기자 hong0@buljabo.com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총무원 예방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지난 3일 취임 인사차 한국불교사회문화기념관을 찾은 이해찬 대표 주종원장 대표는 법률스페이 지원과 종교간 평등의 실현을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해줬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늦었지만 당 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10대 국회가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많은서 일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20년지지자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에서 가장 안상 깊었던 경험으로 대부분 템플스테이를 꼽았다"며 템플스테이의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민주당은 분쉐 모든 종교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해고 지용성을 존중하는 기조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편향이 심해졌다"며 "특히 불교 교단까지 불법사찰을 자행한 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교와 정치는 서로 갈어 관계에 있어 동지 없다"며 종교간 평등을 위해 힘쓰겠다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신재호 기자

의사도 피력했다.

자리에 배석한 종책특단장 원담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은 전단 내외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종단 세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계종의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민주통합당 경향위 의원 김태년 김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장영달 기자 kanti@buljabo.com

"성지순례 신앙 고양에 공동 노력하자"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성료… 공동선언문 채택

"순례는 중요한 종교의례이며 영장류(동물)차원 상조의 양계를 공고하려고 조사를 한층해 순례신앙을 고양시키도록 노력하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미야하시 소겐스님)가 지난 6월20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시코쿠 팬스지(홈페이지에서 게재한 "제3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의 참가자들은 이곳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일 양국 불교 지도자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성지순례지의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 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비롯해 세계평화기원법요식, 한일불교 교류 전시, 사찰간 교류, 개인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도를 통해 한층 교류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리자(大日寺) 성지순례, 고쿠데키인 괴테 명상이 에도시대에는 보모자이크 리로 전해진 등 다채로운 교류 사업으로 진행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6월 26일 열린 세계평화기원법요식 대회사를 통해 "양국 불교계는 만난 의 의미를 넘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해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불교문화 콘텐츠 활성화 방안' 을 논의하면서 양국 불교계가 교류와 증대간 교류, 사찰간 교류, 개인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종도를 통해 한층 교류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승스님은 아울 "불교계 지성과 성숙한 국민성으로 난관을 여겨지 않게 극복해가고 있는 일본국민과 불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됐다"면서 "시코 시코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행복을 위해 공헌하는 모습을 한국에서도 만들어가기 위해 쉴일이 정진해 나갔으"여다고 말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하시 소겐(미야하시 소겐) 대표사제는 "일한 양국이 오랜 역사속에서 관련한 시대를 극복해고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우호정신의 유대를 깊게 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유앤의 공생의 결실이 뻗어지도록 노력하자"고고 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열린 학술세미나에는 이해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과 고인나 이연호(이수불교) 일본 대화대학 교수가 '성지순례지의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 을 주제로 발제한 뒤 참가 대중들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대고종 총무원장 인곤스님, 천태종 전 총무원장 정산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원사, 김재경 국회의원(국회 정각의원) 등 한국불교 지도자 120여 명과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 미야하시 소겐(미야하시소겐) 대표사제와 이사장 니시오카 요코(西岡良子)스님 등 일본불교 지도자 18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가했다.

박인학 기자 parkhak@buljabo.com

국장단 인사 완료' 1면에 이어 총무원 신임 국장 수행이력

장전스님(총무부 총무국장)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동국대 교육대학원 졸업, 국제포교사, 교육원 연수국장, 총무원 사서국장 역임.

남전스님(기획실 기획국장)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96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포교원 포교국장 역임.

무관스님(기획실 감사국장)
1993년 범어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불교사 주지, 총무원 호법국장, 조사국장 역임.

설암스님(재무부 재무국장)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해운정사 주지, 총무원 재정국장 역임.

우풍스님(호법부 호법국장)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94년 동국대학교 졸업, 영원사 주지, 총무원 감사국장 역임.

법전스님(호법부 조사국장)
1998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보현사 주지, 총무원 상임감찰 역임.

현담스님(사서실 사서국장)
1997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2001년 동국대학교(경주) 졸업, 신흥사 주지, 백월지관 사무국장, 총무원 재정국장 역임.

진관스님(직할교구 사무부 사무국장)
2002년 직지사에서 법륜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2002년 송광사강계원 졸업, 총무원 상임감찰 역임.

등록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1986년 직지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96년 동국대학교 졸업, 총무원 상임감찰 역임.

법상스님(호법부 상임감찰)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2003년 해인사승가대학 졸업, 법원사 주지, 총무원 상임감찰, 호법과장, 포교원 신도국 역임.

법화스님(호법부 상임감찰)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200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현재 포교원 전법 지도대사.

법륜스님(호법부 호법과장)
2003년 통도사에서 보성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96년 동국대학교 졸업, 총무원 조사과장 역임.

홍수스님(호법부 조사과장)
2009년 직지사에서 고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2010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